

# 60집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보시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5)

부처님의 성불

부처님이 아난에게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과거 세상에 바라(波羅)왕이 다스리는 우바라 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에는 음탕한 여인이 있었는데 얼굴빛이 곱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우연히 남의 집에 갔다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었다. 음탕한 여인이 그에게 연유를 묻자, 애기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면 애기 어머니의 허기를 해결해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당신에게 밥을 구해 주겠습니다.”

애기 어머니가 대답했다.

“당신이 문을 나가기도 전에 나는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음녀는 생각했다.

“만약 아이를 빼앗아 데리고 가면 애기 어머니는 굶어 죽을 것이고, 만약 내버려두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둘 다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음녀는 자신의 두 젖을 베어 그에게 주며 먹게 했다. 애기 어머니가 음녀의 육신을 받아먹었고, 애기 어머니와 아이 모두 살게 되었다.

음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남자가 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음녀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다.

“누가 그대의 가슴을 베었는가?”

연유를 알게 된 남자는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는 음욕심이 들지 않게 되었다.

“여인이여, 그대를 만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대도 인해 음욕심을 잃게 되었으니 불쌍한 나에게도 무언가 지성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소?”

음녀는 말했다.

“실로 정성이 지극하다면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석재환인이 이 음녀가 보시하는 공덕을 보고 바라문이 되어 그 여자의 집에 갔다. 음녀는 금으로 만든 발우에다 밥을 담아 바라문에게 주었다. 바라문이 발우를 물리며 받으려 하지 않자 여인이 물었다.

“도인께서는 무엇 때문에 공양을 받지를 않으십니까?”

바라문이 대답했다.

“밥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는 가슴을 보시했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바라문이 다시 물었다.

“그때 그대는 가슴을 보시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음녀가 말했다.

“만약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가슴을 보시한 것이고 다른 마음이 없었다면, 저를 남자의 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녀가 말을 마치고자마자 그녀의 몸이 남자로 바뀌었다. 이때에 바라왕이 죽게 되었다.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음녀가 몸을 바꾸어 남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생각했다.

“그 사람을 왕을 삼읍시다.”

신하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왕으로 올랐던 뒤에도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내주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은 왕을 진심으로 섬기며 기뻐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비록 보시를 한다고는 하나 아직 몸을 보

위하여 부지런히 고려했다. 사문의 아들도 나무 아래 앉아 참선과 고행을 통해 5신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곧 바라문의 아들의 도가 두 도인을 넘어서게 되었다. 어느 날, 도인들과 바라문의 아들이 숲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새끼를 뱀 뱀을 만났다. 바라문의 아들이 두 도인에게 물었다.

“이 뱀이 이제 오래지 않아서 해산을 할 텐데, 굶주린 지 여러 날이어서 새 새끼를 잡아먹을까 두렵습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뱀에게 먹이겠습니까?”

한 도인이 말했다.

“제가 제 몸을 주겠습니다.”

뱀이 막 해산을 했다. 모두 뱀 앞에 서자 뱀이 입을 벌리며 두 도인을 잡아먹으려 했다. 도인들은 두려워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는데, 그 중 한 사람



삽화 · 강병호

시하지는 못했다. 몸을 보시해야 진정으로 힘든 보시를 했다고 할 것이다.’

왕은 즉시 온몸에 연유와 향을 바르고 산으로 들어가 바위 위에 누웠다. 그러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물러와 왕의 몸을 쪼아 먹었다. 생명이 다한 왕은 다시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다. 어느 날, 성인이 된 그는 저잣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보게 됐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해 낼 수 있을까?”

그는 즉시 부모에게 달려가 사문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기에 닷새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출가를 허락했다. 아들은 산으로 떠났는데, 어느 숲에 이르러 두 도인을 만났다. 이들은 5신통을 얻어서 땅바닥에 앉은 채 도만을 생각하며 백성들을

이 말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란 것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몸을 뱀에게 먹이겠다고 하더니 왜 날아도 망갑니까?”

바라문의 아들은 이내 칼을 가져다 자신의 팔을 찢어 피를 내고, 그 피를 뱀의 입에 넣어 마시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뱀 앞에 몸을 던져 뱀에게 잡아먹혔다. 그때의 음녀와 왕이 된 사람과 바라문의 아들로서 주린 뱀에게 몸을 던졌던 이가 모두 바로 지금의 나다. 그리고 그때의 두 도인은 지금의 가섭과 미륵, 두 보살이다. 나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60집 동안 몸을 보시했으므로, 9집을 뛰어넘어 미륵이 되기 전에 성불하게 된 것이다.” (《전세삼전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15



## 세상사, 마음에 달려있다

세상의 선입견

엘리베이터를 탔다. 왜 4층만 영어의 F로 표기했을까? 우리 절 2월 방생법회를 떠날 때도 언제나 4호차 대신 5호차로 표시한다. 여기에 이유를 묻지 않아도 나는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 왜 하필이면 꼭 죽을 ‘사(死)’자로만 해석 하는지. 우리 한글로는 그 4를 사랑으로 표현하면 될 텐데 말이다. 그래서 한글로 숫자를 바꿔 생각 해 보았다. 1은 일하는 마음으로, 2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3은 세 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4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5는 오래오래 기억하는 일로, 6은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7은 7×7의 49의 의미를 느끼며 8은 언제나 팔팔한 건강을, 9는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안 될까? 숫자에도 마음이 있다면 죽을 ‘사’로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만약 4여이란 돈이 생긴다면 그래도 그 ‘4’자를 부정할까. 나는 4의 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4는 숫자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숫자이거늘 어찌 빼 놓을 수가 있을까.

요일도 풀이해 보면 단연 일요일엔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월요일엔 월급 받을 생각으로 일하며, 화요일엔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 수요일엔 수

### ‘4’자를 죽을 ‘사’ 아닌 사랑 ‘사’로 모든 인연들에게 보답해야

행의 의미를 생각하며, 목요일엔 목욕을 한 후의 깨끗한 기분을 느끼며, 금요일엔 금지된 일에 자중할 줄 아는 길을 찾고, 토요일엔 토끼처럼 맑고 뛰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글을 만들어 보았다.

사람도 천차만별의 삶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네가 싫다’는 것 보다 그런 인생이 있으니 이런 인생도 있는 세상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벗어나 남을 바로 보는 시선이 되지 않을까. 요즘 불빛이 완연하니 산에나 들에나 앞 다뤄 나타나 는 자연의 묘미를 한껏 누리며 볼 수 있다. 그 여린 앞들이 제각기 경정이라도 하듯 얼굴을 내밀고 서로 봐 달라는 듯 나오고 있다. 어떻게 말로써 표현이 될까. 너무도 소중한 생명으로만 설명 될 뿐이다.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볼 때면 고목에 가까운 내 나이의 새싹은 어떤 모습일까 싶다.

며칠 전 카카오톡에 올라온 사진 속에 새 한 마리가 매화꽃잎 속에 입 맞추듯 찌킨 사진을 보고 향기를 흠뻑하는 것이 아니라 꽃술을 따 먹는 것 같이 사람이 아닌 새들도 봄을 즐기고 행복해 함을 보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모두 행복한 봄을 만져보길, 그리고 느껴보길 기도 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살게 하는 모든 음식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한다. 하루 세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며 산다. 그 음식을 생각하면 그 음식이 있기까지 많은 인연들의 수고가 있었음에 늘 고개가 숙여진다. 나 한 사람이 살아는데 필요한 무수한 인연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히 할 수 없음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땅과 햇빛과 물 그리고 농부 등 과일을 키운 모든 인연들의 공덕을 생각하면 무심히 먹을 수 없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땅의 고마움을, 사과를 먹으면서 햇빛의 고마움을, 자두를 먹을 때는 농부의 고마움을 생각한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를 바라보며 게으르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밤이 되면 달의 고요함 속에 깃든 고마움을 생각한다. 작은 풀벌레 소리도 함께 살아가는 공업 중생임을 생각하며 생명의 소중한 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은인임을 알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 또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고맷게 생각하기로 했다.

봄이 오는 지금 아름다운 숲을 마음껏 거닐 수 있음은 크나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빗물이 들이칠 때도 있다. 창문을 열고 닫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는 일과 다를 것이 없다. 울은 일에는 마음을 열고, 울지 못한 일 앞에서는 마음을 잘 단속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작은 생각이라도 실천해야 할 일은 실천하여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보답해야겠다.

마음

마음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젖어 보니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었다. 물은 비로부터 만들어진, 모양도 없는 것이지만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를 땐 소리로도 아름답다. 그러나 홍수를 이룰 땐 악마와도 같아서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휩쓸어 가버린다. 물이 불안 아주 순하듯 하고 묵묵히 때 걸음을 풀어주는 감로이기도 하다. 물이 열면 얼음이 되고 다시 녹으면 물이 된다.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되고 다시 식으면 찬 물이 된다. 마치 우리 마음이란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지 않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따뜻하고 편안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얼음과 같아서 쌀쌀하게 그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끓는 물과 같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한다. 이렇게 만남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은 물의 변화와 같다. 이런 저런 시비가 없는 깊고 넓은 바다 처럼 마음도 늘 넉넉하고 깊어야 시비가 끊어질텐데...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지극히 고요하고 깨끗한 감로가 되어 누구에게나 감증을 풀어갈 물이 되고 싶다.

부산 언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업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031-534-3373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신 분  
● 건강이 나쁜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하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잘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하신 분  
● 심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기도의 비밀, 불교적책박사, 바늘끝에도 답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우리 산 17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M 카페 |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